

유길준의 『西遊見聞』에 나타난 문명·개화와 도서관 인식 및 영향*

Civilization, Enlightenment and the Perspective and Influence of Libraries in
Yu Kil-chun's *Seoyu Gyeonmun*

강순애 (Kang, Soon Ae)**

◁ 목 차 ▷

1. 서론	4.2 서양의 유명한 국립도서관
2. 유길준의 생애	4.3 기타 여러 나라의 도서관
3.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제시된 문명·개화	5.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의 의미 및 영향
4. 『서유견문』에 소개된 도서관	6. 결론
4.1 서양 도서관의 소개	<참고문헌>

< 초 록 >

이 글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나타난 문명·개화와 도서관 인식 및 영향을 주제로 유길준의 생애, 『서유견문』에 제시된 문명·개화, 『서유견문』에 소개된 도서관, 및 『서유견문』의 도서관 인식 및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유길준(1856-1914)은 철종 7년부터 1914년까지 조선조 말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걸쳐 개혁파로 활동하였다.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였다. 갑신정변에 체포되어 7년간의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고종 32년(1895) 10월 8일 을미사변이 일어난 뒤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건양 1년(1896) 2월 11일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무너지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융희 1년(1907) 8월 16일 일본에서 돌아와 한국의 실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계몽운동에 힘썼다. 1914년 9월 30일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한 것은 서구 문화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유견문』은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유견문』에 제시된 문명개화의 성격은 제14편 뒷부분에 들어있는 개화의 등급에 잘 나타나 있다. 개화의 정의와 등급, 개화하는 방법, 실상개화와 허명의 개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서양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부분은 제17편이다. 이에는 '서적고(書籍庫)'의 제목으로 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장서, 수집 방법, 도서관의 열람제도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서양의 유명한 국립도서관인 영국박물관도서관,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 프랑스 국립 리슐리외 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독일 베를린 대학도서관이 소개되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소개된 1885년경의 서양 도서관의 모습은 매우 발전된 근대 도서관이었다. 국립도서관들의 장서는 100만 권에서 200만 권 사이였다. 이들 도서관들이 이러한 장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납본법과 기증, 구입에 의한 것이었다. 장서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관리, 자료조직 분야, 이용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들 서양 도서관에 나타나는 도서관의 모습은 18세기 이후 유럽 근대화의 흐름에 맞추어 장서가 증가되고 도서관의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모하였다.

궁극적으로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하면서 서양 도서관의 특징을 기술한 것은 지식인들에게 근대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근대도서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는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함께 1906년 근대도서관의 성격을 지닌 경성의 대한도서관과 평양의 대동서관을 설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들 도서관들이 일제에 의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근대도서관의 설립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서지학, 역사학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 문명·개화, 도서관 인식, 영향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2008년 연세대학교 xx연구소에서 유길준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단행본 발행을 목적으로(실제 발행되지 않음) 제출되었던 초안에 근거하되, 새로운 자료들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고, 2018년 4월 27일 춘계한국서지학회의 발표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8년 5월 14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5일

서지학연구, 제74집, 133-161,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133>)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ivilization enlightenment and perception and influence of libraries as shown in Yu Kil-chun's *Seoyu Gyeonmun*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In order to to this, the paper looks into Yu Kil-chun's lif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presented in *Seoyu Gyeonmun*, libraries introduced in *Seoyu Gyeonmun*, and the perspective of libraries and their influence.

Yu Kil-chun (1856-1914) was born in the 7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1856) and lived through the late Joseon period, the Korea Empire and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s a reformist until 1914. He studied in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He wrote *Seoyu Gyeonmun* during his seven-year house arrest following the Gapsin Coup. He was appointed as a minister to the Home Office after the Eulmi Sabyeon occurred on October 8 in the 32nd year of Gojong's reign (1895), but fled to Japan when the cabinet disbanded after Agwan Pacheon began on February 11 in the first year of Geonyang's reign. He returned from his exile to Korea on August 16 in the first year of Emperor Yunghui's reign, and threw himself into the enlightenment movement to bring about progress in Korea. He died on September 30, 1914 at the age of 59. One might say Yu Kil-chun wrote *Seoyu Gyeonmun*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Western culture. *Seoyu Gyeonmun* is composed of twenty volumes. The nature of civilization enlightenment is shown in the levels of enlightenment described in the latter part of Volume 14. In the particular volume, Yu explains the definition and levels of enlightenment, the method of enlightenme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enlightenment and false enlightenment. Volume 17 introduces the libraries of Western countries. The volume is entitled "Seojeokko" and introduces the Western libraries' founders and book collection, method of collecting, and library usage system. Yu went on to introduce famous national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such as the British Library in the United Kingdom, the Imperial Public Library in Russia's Leningrad, the Richelieu Library in France, the Library of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Berlin State Library in Germany. The Western libraries introduced in *Seoyu Gyeonmun* around 1885 were advanced modern libraries. Each national library had a collection of one to two million books. These collections were made possible through the legal deposit system, donation and purchase. As the book collection increased, changes occurred in the libraries' facilities, collection management, data organization field and field usage. That is to say,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were changing from the 18th century onward with the flow of modernization to increase their collection, expand facilities, and become a user-centered library.

Ultimately, Yu's description in *Seoyu Gyeonmun* of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libraries instilled in Korean intellectuals the importance of Western modern librarie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odern libraries in Korea. The ideas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at were embraced along with the perception of libraries influenced the progress of various social conditions and the establishment in 1906 of Gyeongsong's Daehan Library and Pyongyang's Daedong Seogwan, libraries with characteristics of modern libraries. Although the two libraries did not bear fruit because of the Japanese occupation, it is certain that the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ibraries in Korea.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future as basic research material in the field of public records as well as thos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ibliography and history.

Key words: Yu Kil-chun, *Seoyu Gyeonmun*, Civilization Enlightenment, Perception of Libraries, Influence

1. 서론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조선조 말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걸쳐 김윤식(金允植)·어윤중(魚允中)·박영효(朴泳孝)·김옥균(金玉均)·서광범(徐光範) 등과 개혁파로 활동하였다.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였다. 갑신정변에 체포되어 7년간의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고종 32년(1895) 10월 8일 민비학살사건이 일어난 뒤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건양 1년(1896) 2월 11일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무너지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융희 1년(1907) 8월 16일 일본에서 돌아와 일본인 밑에서 벼슬하지 않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문명·개화 사상가로 활동하였다. 1914년 9월 30일 59세에 세상을 떠났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문명을 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책이다. 이 책은 총 20편으로 구성되었고, 세계지리, 국가와 인권, 서양의 정치제도, 학문과 사회제도, 사회 및 문화 시설, 여러 도시들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이 방대하여 근대 문명·개화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이 책을 접했을 만큼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알려져 역사적 조명을 받는 명저이다.

그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유길준 혹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연구하면서 인식한 문명·개화 사상에 대하여 언급한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김영호(金泳鎬)는 유길준의 개화사상은 서구자본주의의 도전을 받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한갓 서양화를 주장한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하나의 독특한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였다.¹⁾ 이광린(李光麟)은 유길준의 개화사상은 서양의 이념과 제도를 중요시하였지만 개화의 방식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²⁾ 이기용(李起勇)은 서양 문명을 앞선 문명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도입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대외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이것을 위해 일반국민을 계몽하는 것이라 하였다.³⁾ 이원영은 『서유견문』은 문명사관이라는 역사관을 근거로 하여 조선이 부강과 대외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진보에 의해 문명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 관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⁴⁾ 이처럼 그의 문명·개화사상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지만, 핵심은 문명사관에 입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근대화하고 일반국민을 계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유견문』에 나타난 문명·개화와 도서관 인식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된 논문이 있지만⁵⁾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유길준의 생애, 『서유견문』에 제시된 문명·개화, 『서유견

1) 金泳鎬, “兪吉濬의 開化思想,” 『創作과 批評』 11(1968), 492.

2) 李光麟, “兪吉濬의 開化思想 -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 『歷史學報』 제75·76 합집(1977), 236-244.

3) 李起勇, “韓國開化思想과 日本文明思想의 比較研究,” 『한일관계사연구』 제4집(1995), 26.

4) 이원영, “문명사관과 문명사회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보』 제30집 제4호(1997), 149.

5) 李春熙, “近代 韓國 圖書館史 研究 - 開化期에 있어서 近代圖書館思想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권(1989), 71-110.

문』에 소개된 도서관, 『서유견문』의 도서관 인식 및 영향을 살펴서 도서관학, 기록관리학, 서지학, 역사학 분야에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2. 유길준의 생애

유길준의 생애와 『서유견문』을 다룬 자료와 연구는 많다. 유길준의 간략한 전기는 유길준전서 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5의 부록에 유만겸(兪萬兼, 1889-1944 유길준의 첫째 아들)이 쓴 「선친약사(先親略史)」를 비롯하여, 「구당거사약사(矩堂居士略史)」, 「민중의 친우 유길준 선생」, 「나는 민중과 시종호얏소」, 「도산 안창호선생이 본 구당약사」, 「유길준선생연보(兪吉濬先生年譜)」 등이 실려 있다. 이들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유길준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길준의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 또는 천민(天民)이다. 9세에 부친 유진수(兪鎭壽)에게 한학(漢學)을 접하였다. 고종 3년(1866)의 병인양요로 인해 경기도 광주군 덕풍리로 낙향했다가 고종 6년(1869)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 외할아버지인 이경직(李敬植)에게 잠시 공부하다가 고종 7년(1870) 경부터 박규수(朴珪壽)의 문하로 들어갔다.⁶⁾

유길준은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개화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박규수는 실학을 개화사상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당시 사회의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 유길준은 박규수로부터 중국의 위원(魏源)이 저술한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얻어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게 되었다. 박규수 집에 출입하던 인물 가운데金玉균(金玉均, 1851-1894),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서광범(徐光範, 1859-1897), 김윤식(金允植, 1835-1922) 등이 있다. 고종 24년(1887) 박규수가 죽은 후에는 김윤식, 어윤중(魚允中, 1848-1896) 등과 어울려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⁷⁾

고종 13년(1876) 일본과 수호 조약 체결 이후, 위정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강책을 강구하면서 개방 개혁론자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길을 열게 되었고, 고종 17년(1880)부터 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유길준은 고종 18년(1881) 봄에 어윤중의 주선으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3개월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 그곳에 남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운영하는 경응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 지도를 받게 되었다. 1년 반 동안 유키치의 지도 아래 『서양사정(西洋事情)』,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 『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 등의 개화서적

6) 兪萬兼, “선친약사(先親略史),”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63.

7) 韓哲昊, “兪吉濬의 生涯와 思想,” 『한일관계사연구』 제4집(2000), 7-9.

을 탐독하였다.⁸⁾

고종 19년(1882) 7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유길준은 대원군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함께 유학 중인 윤치호와 함께 대원군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일본의 원조를 구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러한 행동은 문명화를 위해서는 외세 개입도 불사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영선사로 중국에 머물러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이 청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과 대비를 이루었다. 유길준은 임오군란 후 고종 19년(1882) 9월부터 3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12월에 귀국하였다.⁹⁾

고종 20년(1883) 7월 유길준은 미국에 파견하는 보빙사(報聘使)의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어 미국에 가게 되었다. 그해 9월과 10월에 미국 각지를 시찰하였고, 11월에 매사추세츠주 셀럼(Salem)시 피바디 박물관장인 모스(Edward S. Morse) 박사의 개인지도를 받게 되었다. 고종 21년(1884) 9월 매사추세츠주 바이필드에 있는 담머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본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 귀국 길에 약 1년간에 걸쳐 유럽 각지를 유람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하여 고종 22년(1885) 12월에 귀국하였다.¹⁰⁾

유길준은 귀국 후 개화당과의 관련 혐의를 받고 포도청에 체포 감금되어 한규설(韓圭晫)의 집에 유폐되었다가 고종 24년(1887) 가을부터 고종 29년(1892) 봄까지 민영익의 별장인 백운동(白雲洞) 취운정(翠雲亭)으로 옮겨 그곳에서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초고가 완성되었다. 고종 29년(1892)에 서울 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연금에서 풀려났다. 고종 31년(1894)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로 복임(復任)되었다. 유길준은 고종 32년(1895) 일본 보빙사절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나가게 되자 이듬해인 건양 원년(1896) 후쿠자와가 설립한 교순사(交詢社)에서 『서유견문』을 간행하였다.¹¹⁾

유길준은 『서유견문』 1,000부를 찍어 모두 서명하여 정부의 고관을 비롯한 당시의 유력자들에게 기증하였다. 그러나 유길준이 건양(建陽) 원년(1896) 2월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서유견문』은 정부의 급서가 되었다. 그럼에도 『서유견문』은 시의에 맞는 책으로 인식되어 공립소학교 혹은 사립학교의 교과서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지식인, 정치가, 계몽 운동가들에게도 탐독되어 개화사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¹²⁾

유길준은 고종 31년(1894) 정권에 복귀하여 위에서 언급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주사로 복임된

8) 韓哲晷, “俞吉濬의 生涯와 思想,” 『한일관계사연구』 제4집(2000), 9-11.
 9)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72-73.
 10) “유길준선생연보(俞吉濬先生年譜),”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俞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92.
 11) “유길준선생연보(俞吉濬先生年譜),”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俞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92-393.
 12)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87.

후 참의교섭통상사무, 궁내부협관, 내부아문협관, 내각총서, 내부협관, 의주부관찰사, 특임일본국대사,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였고, 갑오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활약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청일전쟁으로 인해 고종 32년(1895) 5월 10일 친러 내각의 성립과 그해 8월 20일 일본이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건양 원년(1896) 2월 11일의 아관파천으로 김홍집과 유길준의 내각은 붕괴되었다. 이의 여파로 총리대신 김홍집과 탁지부대신 어윤중은 살해되었고, 외부대신 김윤식은 제주도로 종신 유배되었으며 유길준을 비롯한 8명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갑오개혁은 중단되었다.¹³⁾

유길준은 일본에서 11년간 망명생활을 한 뒤 헤이그밀사 파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함에 따라 융희(隆熙) 1년(1907) 8월 16일에 귀국하였다. 그는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와 힘이 있음을 파악하고 위기의식을 가졌다. 그는 귀국해서 일체의 관직을 거절하고 일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실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계몽운동에 힘썼다. 그 일환으로 유길준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동야학독본』을 저술하여 보급하였고, 흥사단(興土團)을 설립하여 국민 전체를 ‘선비’로 만들 것을 주창하였으며, 한성부민회의 체제를 정비하여 자치기관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애국계몽운동의 역사의식은 문명지상주의로 정치적 불행은 문화적 열등의 소치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은 좌절되었다.¹⁴⁾

유길준은 결국 멸망한 조국에서 1914년 9월 30일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10월 8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동부읍(東部邑) 신면(新面) 덕풍리(德豐里) 선영에 안장되었다.¹⁵⁾

3.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제시된 문명·개화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한 것은 서구 문화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는 문명·개화의 개념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 문화 형식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모더니즘과 역사주의를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모더니즘과 역사주의는 서구, 나아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직·간접적인 식민 지배를 관철하는 문화적 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가진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 담론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었다.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탈식민주의 문화론은 민족주의, 토착주의(nativism), 문명주의(civilizationalism)라는, 서로 중첩된 채로 연결된 세 가지 형태를 취해 오고 있다.¹⁶⁾

13)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89-97.

14)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101-110.

15) “유길준선생연보(兪吉濬先生年譜),”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95.

16) 김현주, “『西遊見聞』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제24집(2001), 242.

『서유견문』은 20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상의 흐름으로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⁷⁾ 1단계는 제1편과 제2편으로 세계지리, 6대주, 나라, 산, 바다, 강, 호수, 인종, 물산을 다루고 있다. 2단계는 제3편부터 제14편인데 국가와 국민의 권리 및 정부의 여러 분야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편과 제4편은 나라와 국민의 권리, 제5편과 제6편은 정부의 시초, 종류, 제도, 직분, 제7편과 제8편은 세금 관련 법규, 납세 의무, 제9편은 교육과 군대, 제10편은 화폐, 법률, 경찰제도, 제11편은 당과, 생계, 건강, 제12편은 애국과 어린이 양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13편은 서양학문, 제14편은 상인, 개화의 등급을 다루고 있다. 3단계는 제15편에서 제18편까지이며 제15편과 제16편은 서양의 민속과 풍속에 관계된 사회생활과 제도, 제17편은 서양의 여러 사회 시설, 문화 시설, 제18편은 증기기관과 와트(James Watt, 1736-1819)의 약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단계는 제19편과 제20편으로 서양의 주요 도시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제19편은 영국과 미국, 제20편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의 도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서유견문』에 제시된 문명개화의 성격은 제14편 뒷부분에 들어있는 개화의 등급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문을 인용하고 의미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의 등급에 대해 유길준의 첫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一. 大概開化라 하는 者는 人間의 千事萬物이 至善極美한 境域에 抵함을 謂함이니 然한 故로 開化한 境域은 限定하기 不能한 者라 人民才力의 分數로 其等級의 高低가 有하나 然하나 人민의 習尙과 邦國의 規模를 隨하여 其差異함도 亦生하느니 此는 開化한 軌程의 不一한 緣由어니와 大頭腦는 人의 爲不爲에 在할 ㅅ름이라 五倫의 行實을 純篤히 하여 人이 道理를 知한 則此는 行實의 開化며 人이 學術을 窮究하여 萬物의 理致를 格한 則此는 學術의 開化며 國家의 政治를 正大히 하여 百姓이 泰平한 樂이 有한 者는 政治의 開化며 法律을 公平히 하여 百姓이 冤抑한 事가 無한 者는 法律의 開化며 器械의 制度를 便利히 하여 人의 用을 利하게 한 者는 器械의 開化며 物品의 製造를 精緊히 하여 人의 生을 厚히 하고 荒蕪한 事가 無한 者는 物品의 開化니 此屢條의 開化를 合한 然後에 開化의 具備한 者라 始謂할디라 天下古今의 何國을 顧考하든지 開化의 極臻한 境에 至한 者는 無하나 然하나 大綱 其層級을 區別하건디 三等에 不過하니 曰 開化한 者며 曰半開化한 者며 曰未開化한 者라”라고 하였다.¹⁸⁾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개화란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이 지극히 선하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지와 영역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능력은 재주와 능력 정도에 따라 높거나 낮은 등급이 있지만 국민들의 습상(習尙)과 나라의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개화하는 과정은 행실의 개화, 학술의 개화, 정치의 개화, 법률의 개화, 기계의 개화, 물품의 개화 등이 있으며 이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합한 연후에 개화를 구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는 등급을 구별해보면 개화하는 나라, 반쯤 개화한 나라, 아직 개화하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 있다.

17) 韓哲昊, “俞吉濬의 개화사상서 『西遊見聞』과 그 영향,” 『진단학보』 89(2000), 233.

18)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I, 제14편 開化等級 (交詢社, 1896), 375-376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여기서 말하는 개화는 사회의 전체 영역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함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였다. 개화란 전체성과 완전성을 지향하는 개념이므로 그 경지와 영역에 한정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¹⁹⁾ 문명개화의 단계에 대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의 개략』에서 문명개화의 단계를 문명-반개(半開)-야만으로 나누고, 유럽 여러 나라와 미합중국을 최상의 문명국으로, 터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반개국으로, 아프리카 및 호주 등을 야만국으로 분류하였는데,²⁰⁾ 유키치의 이러한 문명 3단계론이 유길준에게 수용되어 『서유견문』의 서사를 지탱하는 뼈대로 보았다.²¹⁾

둘째, 개화의 등급인 개화, 반개화, 미개화에 대해 유길준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二. 開化호는 者는 千事와 萬物을 窮究호며 經營호야 日新호고 又日新호기를 期約호느니 如此호므로 其進取호는 氣像이 雄壯호하 些少의 怠惰호미 無호고 又人을 待호는 道에 至호야는 言語를 恭遜호히 호며 形止를 端正호히 호야 能호는 者를 時倣호며 不能호는 者를 是矜호고 敢히 慢侮호는 氣色을 示호지 못호며 敢히 鄙悖호는 容貌를 設호지 못호야 地位의 貴賤과 形勢의 強弱으로 人品의 區別을 不行호고 國人이 其心을 合一호야 屢條의 開化를 共勉호는 者며
三. 半開化호 者는 萬物의 窮究도 不行호며 經營도 不有호야 苟且호는 計圖와 姑息호는 意思로 小成호는 域에 安호고 長久호는 策이 無호디 猶且自足호는 心性이 有호야 人을 接待호기는 能호는 者를 許與호미 少호고 不能호는 者를 凌侮호야 恒常倨傲호는 氣色을 帶호고 妄意自重호야 貴賤의 地位와 強弱의 形勢로 人品의 區別을 已甚히 行호는 故로 國人이 各其一身의 榮華와 慾心을 經綸호고 屢條의 開化에 心을 不專호는 者며
四. 未開化호 者는 卽 野蠻의 種落이니 千事와 萬物에 規模와 制度가 無有호는 當初에 經營도 不爲호고 能호는 者가 如何호지 不能호는 者가 如何호지 分別도 不能호야 居處와 飲食에도 一定호는 規度가 不存호며 且人을 待호기에 至호야는 紀綱과 禮制가 無호는 故로 天下에 最可矜호는 者라”하였다.²²⁾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개화한 자**는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을 연구하고 경영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약하게 되니, 그 진취적인 기상이 웅장하고 사소한 게으름도 없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언어를 공손히 하고 용모와 행동을 단정히 하여 지위의 귀천과 형세의 강약으로 인품의 구별을 행하지 않는다. 국민이 그 마음을 합일하여 여러 가지 개화를 함께 힘쓰는 사람이다. **반쯤 개화한 자**는 사물을 연구하지 않고 경영하지도 않으며, 구차한 계획과 임시방편의 의사로 조그맣게 이루어진 것에 안주하고 장구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이 각각 자신의 영화와 욕심을 위해 헛수고하고 여러 가지 개화를 위해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는 야만의 종족이다.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에 규모와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경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분별, 법도, 기강 및 예법이 없어서 천하에 가장

19) 김현주, “『西遊見聞』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제24집(2001), 233.

20) 후쿠자와 유키치 저, 정명환 역, 『문명론의 개략』 (광일문화사, 1987), 21.

21) 김현주, “『西遊見聞』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제24집(2001), 238.

22)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第十四編, 開化等級 (交詢社, 1896), 376-377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불쌍한 사람들이다.

유길준이 여기서 말하는 ‘미개화(未開化, 야만) → 반개화(半開化) → 개화(開化, 문명개화)’의 도식은 문명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단일한 총체로 보고 그러한 진보의 체계에 입각하여 역사를 해석하는 도식이다. 즉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념을 수용하여 진보와 국가라는 개념을 중요시하였다. 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고, 국가는 국제정치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인구 개념 등과 더불어 근대의 정치학을 표현하는 개념이다.²³⁾

셋째, 유길준이 개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이다. 원문의 각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五. … 國人이 一齊히 개화하기는 極難한 事니 人生의 道理를 修며 事物의 理致를 窮究하면 是는 蠻夷의 國에 在호야도 開化호는 者며 人生의 道理를 不修호고 事物의 理致를 不究호면 開化호 國에 在호야도 未開化호는 者라 … 六. 開化호는 事를 主張호야 務行호는 者는 開化의 主人이오 개화하는 者를 歎羨호야 學호기를 喜호고 取호기를 樂호는 者는 開化의 賓客이며 開化호는 者를 恐懼호고 疾惡호디 不得已호야 從호는 者는 開化의 奴隸니 主人의 地位를 居호기 不得호디던 寧賓客의 座를 取호디던 奴隸의 列에는 立호도 不可호니 …”라고 하였다.²⁴⁾

위의 내용에 의하면, 개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개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면 야만국가에 있어도 개화한 자이지만,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지 않으면 개화한 나라에 있더라도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이다. 또한 개화하는 일을 주장하고 힘써 실행하는 자는 개화의 주인이고, 개화하는 자를 부러워하여 배우기를 기뻐하고 남의 말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는 개화의 빈객이며, 개화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서 마지못하여 따르는 자는 개화의 노예라고 하였다. 개화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빈객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유길준이 개화의 실상과 허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실상개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논한 것은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七. 且夫開化는 實狀과 虛名의 分別이 有호니 實狀開化라 호는 者는 事物의 理致와 根本을 窮究호며 考諒호야 其國의 處地와 時勢에 合當케 호는 者며 虛名開化라 호는 者는 事物上에 知識이 不足호디 他人의 景況을 見호고 歎羨호야 然호든지 恐懼호야 然호든지 前後를 推量호는 智識이 無호고 施行호기로 主張호야 財를 費호기 不少호디 實用은 其分數를 抵호기 不及호이니 … 八. 嗟乎라 開化호는 事가 他人의 長技를 取호는 者는 自己의 善美호는 者를 保守호기에도 在호니 … 過호는 者는 毫末의 分別도 無호고 外國이면 盡善호다호야 自己의 國에는 如何호는 事物이든지 不美호다호며 已甚호기에 至호야는 外國의 景況을 稱道호야 自己의 國을 慢侮호는 弊俗도 有호니 此를 開化黨이

23) 김현주, “『西遊見聞』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제24집(2001), 239.

24)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第十四編, 開化等級 (交詢社, 1896), 378-379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라 謂호나 此豈開化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罪人이며 不及호는 者는 頑固호는 性稟으로 事物의 分界가 無호고 外國人이면 夷狄이라호고 外國物이면 無用件이라 호고 外國文字는 天主學이라 호야 敢히 就近호지 못호며 自己의 身이 天下의 第一인 듯 自處호나 甚호기에 至호야는 避居호는 者도 有호니 此를 守舊黨이라 謂호나 此豈守舊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讎敵이니 … 九. 世級이 降호스록 人의 開化호는 道는 前進호는니 言者가 或曰호디 後人이 前人을 不及호다 호나 然호나 此는 未達호는 談論이라 … 十. 抑此新奇호고 深妙호는 理致는 舊世界에 不存호고 今日에 始有호는 者 아나오 天地間의 其自然호는 根本은 古今의 差異가 無호디 古人은 窮格호기 不盡호고 今人은 窮究호야 據到호는 者니 … 我邦에도 高麗磁器는 天下의 有名호는 者며 李忠武에 龜船은 鐵甲兵船이라 天下의 最先 擧出호는 者며 校書館의 鐵鑄字도 天下의 最先創行호는 者라 我邦人이 萬若窮究호고 又窮究호야 便利호는 道理를 經營호았드면 千萬事物이 今日에 至호야 天下萬國에 名譽가 我邦에 歸호았슬디어늘 後輩가 前人의 舊規를 潤色디 아니호미로다”라고 하였다.²⁵⁾

유길준은 개화를 실상개화와 허명개화로 구분하였다. 실상개화는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깊이 연구하고 고증하여 그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케 하는 경우이다. 허명의 개화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남이 잘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진정한 개화는 남의 나라의 잘된 것을 본받는데 경험을 축적하여 처음에는 허명개화이지만 점점 실상개화로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 유길준은 결론으로 우리나라도 천하에 으뜸인 것이 있었으니 고려청자, 이순신의 거북선, 금속활자를 예로 들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천만가지 사물에 세계 만국의 명예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것인데 후배들이 옛 제도를 윤색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고 있다.²⁶⁾

결국 개화는 역사 발전의 단계론에 의거하는 것이며, 당시의 구미(歐美) 제국이 한국보다 발전된 나라이지만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며, 개화의 목표는 서구가 아니라 서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4. 『서유견문』에 소개된 도서관

4.1 서양 도서관의 소개

일본에 근대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유길준의 스승인 후쿠자와 유키치였고, 우리나라에 서양의 근대도서관을 문헌에 처음 소개한 것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다. 이 책에서 서양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부분은 제17편이다. 이에는 ‘서적고(書籍庫)’의 제목으로 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장서,

25)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第十四編, 開化等級 (交詢社, 1896), 377-384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26) 유길준 저, 허경진 역, 『서유견문』 (과주: 서해문집, 2008), 398-402.

27) 金泳鎬, “兪吉濬의 開化思想,” 『創作과 批評』 11(1968), 483.

수집 방법, 도서관의 열람제도 등이 소개되고 있다.

첫째, 도서관 설립의 주체와 장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書籍庫는 政府의 設施호는 者도 有호고 政府와 人民이 合力호야 建寔호는 者도 有호는 지라 經書와 史記와 各學의 書籍과 古今의 名畫 及小說과 各國의 新聞紙의 種類에 至호야 不備호는 者가 無호니 …”라고 하였다.²⁸⁾

도서관은 정부에서 설립한 곳도 있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세운 곳도 있다. 그곳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경서와 역사책, 각종 학문의 서적과 고급의 명화 및 소설로부터 각국의 신문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가 구비된 곳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 外國의 書冊이 新出版호는 者는 購致호고 本國의 書冊은 出版호는 者가 各地 書籍庫에 各一帙을 送致호는 故로 書冊의 卷數가 歲를 逐호야 增加호는 緣由라 如此히 書籍을 貯蓄호는 世上에 無識호는 人民이 欲無호는 方策의 一大主意니 然호므로 泰西諸國에는 大都會마다 書籍庫의 無호는 處가 無호시오…”라고 하였다.²⁹⁾

외국의 도서관들은 외국에서 새로 출판된 책은 구입하고, 본국에서 출판된 책은 출판사가 각 지역의 도서관에 한 질씩 보내므로 책의 권수가 해마다 늘어나며 이와 같이 책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이유는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없애려는 주된 뜻이 있으며 이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는 대도시마다 도서관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도서관의 열람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如何호는 人이든지 書籍을 閱覽호저호는 者는 書籍庫에 進호야 任意로 何書든지 披考호기 許호디 携持호고 他處에 往호는 者는 不許호며 惟讀書호는 學徒가 書冊이 缺乏호야 工夫호기 不能호는 時는 賁로 給貸호나 然호나 若其冊子를 毀傷호는 則其本價를 徵出호는니…”라고 하였다.³⁰⁾

도서관에 가서 마음대로 아무 책이나 펴볼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독서하려는 학생이 공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를 내고 빌려주며 책을 훼손시키면 책값을 물어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8)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七編, 書籍庫 (交詢社, 1896), 455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29)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七編, 書籍庫 (交詢社, 1896), 455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30)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七編, 書籍庫 (交詢社, 1896), 455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4.2 서양의 유명한 국립도서관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제17편에는 서양의 유명한 국립도서관이 소개되어 있는데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을 소개하고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을 파리의 국립도서관으로 장서가 200만 권을 넘는다고 하였다.³¹⁾ 영국의 영국박물관을 도서관으로 소개한 것은 당시 영국박물관이 도서관과 함께 있었으므로 영국박물관 도서관에 해당된다. 당시 이 도서관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도서관

영국박물관 도서관은 1753년 노던프톤셔의 보턴(Boughton in Northamptonshire)의 영주 몬타규(Duke Montagu)공의 저택(현재는 그레이트 러셀가(Great Russell Street)에 면한 블룸즈버리(Bloomsbury))을 매입하여 왕실의 의사였던 슬로안(Hans Sloane, 1660-1753)경의 소장품, 옥스퍼드 백작이던 할리(Robert Harley, Earl of Oxford, 1661-1724)의 중세교회문서, 왕실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던 코튼문고(Cottonian Library)의 장서를 기초로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³²⁾

영국박물관 도서관은 창설 이래 근대도서관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하였다. 1760년에 국왕 조지 2세(King George II, 재위 1727-1760)가 왕실의 귀중한 사본들로 형성된 고왕실문고의 장서를 기증하면서 출판물의 한 부를 납본 받는 특권도 양도하였다. 이 특권에 의해 신간서를 망라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00년대에는 많은 장서의 기증과 구입으로 도서관 건물이 협소해졌다. 1854년 구 몬타규 저택을 증개축하고 주변에 신 건물들을 지었다. 유명한 철골 원형의 대열람실 공사가 착수되어 1857년에 완성되자 열람실이 개시되었다.³³⁾

이 시기에 영국박물관 도서관을 세계 최대의 도서관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망명 온 파니치(Anthony Panizzi, 1797-1879)였다. 그는 1831년 영국박물관 도서관의 부 사서(the Assistant Librarian)로 임명되었다. 그는 영국박물관 도서관의 장서가 영국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받쳐주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장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영국 국내도서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전의 원본과 복사본 및 해설서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외국 문학, 예술, 과학에 관련해서 도서관은 비평과 참고를 위해 표준자료를 소장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31) 兪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七編, 書籍庫 (交詢社, 1896), 455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 各國 書籍庫에 最有名 者는 英吉利國 京城 圖塾에 在 者와 俄羅斯國 京城 聖彼得堡에 在 者와 佛蘭西國 京城 巴리에 在 者라 其中에도 巴리의 書籍庫가 尤大 者니 其貯蓄 卷數가 二百萬卷에 逾 故로 佛蘭西 人이 其 宏大 規模를 恒常 矜誇 者이라”

32)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3-264.

33)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5-266.

영국박물관 도서관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장서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납본법을 강화하여 1870년에는 장서가 100만 책을 돌파하였다.³⁵⁾

파니치는 최초의 근대 목록규칙인 ‘Ninety-One Cataloguing Rules’(1841)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영국박물관 도서관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모든 도서목록에 있는 일련 번호 외에 모든 장서에 서가에서 고정된 위치를 정해주는 ‘서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박물관 도서관 등록자는 1830년 3,000명에서 1840년 16,00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하루 평균 이용자는 230명이었다.³⁶⁾

파니치는 1854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열람실을 설계·착수하여 1857년에 유명한 철골 원형의 대열람실 공사를 완성시켰다. 이로 인해 서고와 열람실이 분리되었고, 서가는 가동식의 철제 서가를 사용하여 공간이 절약되었다. 이는 도서관 건축 사상 신기원을 이룬 것이며 현대화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그가 사임할 때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과 함께 2대 도서관의 하나가 되었다. 1905년 장서목록이 완성되었는데 200만 책이 수록되었다. 인쇄본 외에도 지도·단면인쇄물·파피르·점토판·외래본·회화·박물관자료가 500만 점이 소장되었다. 자료는 계속 증가하여 1960년대에는 650만 인쇄본을 소장하였다.³⁷⁾

1972년 영국국립도서관법의 제정으로 인해 새로운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이 형성되었는데 영국박물관도서관부(the Library departments of the British Museum, 1753 설립), 국립과학발명참고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Invention, 1855 설립), 국립중앙도서관(the National Central Library, 1916년 설립), 국립과학기술자료대출도서관(the 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1961년 설립)이 통합 운영되었다. 1974년에는 영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와 과학기술정보처(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합쳐졌으며 1982년에는 인도사무국도서관기록원(India Office Library and Records)이, 1983년에는 영국음향기록원(British Institute of Records Sound)이 합쳐졌다. 이와 같이 영국국립도서관은 런던에 있는 여덟 개의 도서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한편 영국박물관에는 1850년대에 파니치의 구상으로 만들어진 리딩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³⁸⁾

유길준이 1885년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영국박물관 도서관은 파니치의 공헌으로 가장 발전되었던 시기였다. 장서개발이 이루어지고, 편목규칙이 만들어졌으며, 납본법이 강화되어 장서가 100만 책을 돌파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리딩룸은 물론이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대 도서관의 웅장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에 방문한 것이다. <그림 1>은 영국박물관의 리딩룸이다.

34) 광철완,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2012), 129-132.

35)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6.

36) 광철완,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2012), 129-131.

37)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7.

38) 박은정,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도서관계』 6월호(2006), 26.



<그림 1> 영국박물관의 리딩룸의 모습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British_Museum_Reading_Room_Panorama_Feb_2006.jpg

4.2.2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은 캐더린 2세(Catherine II)가 1795년 5월 27일에 제정러시아도서관(the Imperial Public Library) 빌딩의 설계를 위한 공식적인 인준을 하였고, 건축가 소코로브(Yegor Sokolov)에게 건물 설계를 위임하였다. 제1빌딩은 1795년 6월에 황궁으로부터 멀지 않은 수도 중심부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러시아 최초의 제정러시아도서관이다. 캐더린 2세는 피터 대제(Peter the Great)의 뜻과 당시의 시대 조류를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은 제정 러시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도록 하였다. 네프스키 광장과 사도바야 가(街)가 만나는 곳에 세워진 도서관 건물은 인물상 여섯 개를 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둥근 기둥이 지탱하는 사분원 형태의 열 주랑을 갖춘 아름다운 신고전 양식의 궁전이었다.³⁹⁾

18세기 유럽의 도서관들이 이용자에게 봉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제정러시아도서관은 러시아 서적과 필사본의 보관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용도서관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1800년에는 스트로가노프 백작(Count Alesander Stroganov)이 제정러시아도서관의 관장이 되었다. 그는 장서가들의 서적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았는데 그중 도브르스키(Piotr Dubrovsky) 수집본 중에는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 아카이브 중의 일부 문서를 비롯하여 성 저메인과 코르비 수도원의 5세기부터 13세기의 필사본들이 들어 있다. 또한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the Ostromir Gospel of 1056-57』과 러시아 최초의 연대기인 『Lavrentyevskaya Chronicle of 1377』이 있다.⁴⁰⁾

39) 차크 보세 글, 이섬민 옮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서울: 다빈치, 2012), 238.

1811년에 제3대 도서관장이 된 올레닌(Alexei Olenein, 1763-1843)은 일반인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였다. 그가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1809년에 발행했던 도서관 장서와 목록의 조직에 관한 매뉴얼에 이어 1811년에는 러시아 서적을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켰다. 또한 1810년 제정된 납본법에 의해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발간물 중 2부를 제정러시아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였다. 올레닌이 관장으로 봉사하였던 1814년부터 1842년까지 도서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계몽의 전당이었다. 이 시기를 푸슈킨(Aleksandr Sargeevich Pushkin)은 영광과 기쁨의 시기로 일컬었다.⁴¹⁾ 올레닌이 죽은 후인 1843년부터 1849년까지 부투린(Dmitry Buturlin)이 관장으로 있던 시기는 도서관의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외국잡지의 구독이 줄어들며 등 도서관의 발전이 침체되었던 시기였다.⁴²⁾

1850년부터 1859년 사이에 관장이었던 코로프(M. A. Korff) 백작은 제정러시아도서관을 발전시켰다. 이용자의 34%가 젊은 사람들이었고 전국에서 서적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도서관 장서가 급증하였다. 도서관은 잘 조직화되어 정보데스크가 만들어지고, 인쇄목록과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며 새로 구입한 서적의 정보가 공급되었고, 희귀본과 문학 작품의 연구를 위한 연구실이 마련되었으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연장되었다. 당시의 도서관은 전문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⁴³⁾

1860년부터 1899년까지는 도서관이 가장 근대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새로운 문명시기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기였고, 소수의 전문 그룹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1860년대부터 1890년 사이에 기증자들이 50만의 장서를 기증하였다. 1890년 말에는 도서관 이용자 수는 1850년 수치보다 거의 7배나 증가했으며 방문 수는 9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서는 수동적인 큐레이터나 서가 관리인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조언과 지시사항을 가지고 봉사해야 했다.⁴⁴⁾

1992년 1월 엘친 대통령의 칙령으로 모스크우에 있던 레닌도서관은 러시아 연방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그해 3월 27일에 공식적인 러시아국립도서관(the State Library of Russia)이 되었고, 제정러시아도서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in St. Petersburg)으로 변경되어 러시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인 유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40)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rincipal Book Repository in Russia (1795-1813).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1.htm>>.

41)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New Temple of Enlightenment in St.-Petersburg (1814-1842).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2.htm>>.

42)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Arrival of Dmitry Buturlin as Director (1843-184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3.htm>>.

43)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olitical Spring in Russia (1850-185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4.htm>>.

44)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Modern Era":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1860-189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5.htm>>.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국립도서관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로루시어로 된 세계 최대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초기 인쇄본, 피터대제 시기의 장서를 비롯하여 15세기 유럽에서 인쇄된 인큐네블러(incunabula) 6,000여 항목, 귀중본 800,000여 항목 등을 소장하고 있다.⁴⁵⁾

유길준이 1885년에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장서와 시설 및 이용자가 가장 근대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시기였고, 이용자들이 많아 사서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자를 위해 봉사했던 제정러시아도서관의 가장 문명·개화된 단계였다. <그림 2>는 1896년 Yevgraf Vorotilov가 디자인 한 열람실을 위한 초석을 놓는 Karl Bulla의 사진이다.



<그림 2 >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stone for the reading hall designed by Yevgraf Vorotilov. Photograph by Karl Bulla. 1896
출처: <http://nlr.ru/eng/nlr/history/5.htm>

4.2.3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의 모태가 되는 왕실도서관은 1368년 샤를 5세가 그의 개인 장서를 루브르궁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왕립도서관은 블로아(Blois) 성과

45)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re-Revolutionary Years (1900-1917).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6.htm>>.

46) Consortium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Russia, St Petersburg. [검색일자 2018. 4. 6] <http://www.cerl.org/web/en/resources/hpb/content/national_library_of_russia_st_petersburg>

퐁텐블로(Fontainebleu)로 옮겨진 후 앙리 4세(Henry IV, 재위 1589-1610) 때 왕실문고를 클레몽(Clermont) 대학으로 이전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⁴⁷⁾

프랑수와 1세(Francois I, 1494-1547)는 1537년 12월 28일 발효된 몽펠리에 칙령에 따라 도서 검열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출판사와 인쇄소는 새로 출판되는 모든 책의 1부를 도서관에 납본하는 법률을 만들어 장서를 증가시켰다. 1622년 처음으로 인쇄목록이 발간되었는데, 사본과 인쇄본 모두 6천 종이 수록되었다. 루이 14세(Louis XIV, 1643-1715) 때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재상의 후원을 받아 급성장하였다. 1670년 클레몽(Nicolas Clement)은 도서관을 위해 5개의 대주제 아래 23개의 소주제를 알파벳순으로 고안한 표를 만들었다. 1719년 왕립도서관은 장서의 일부를 일반에게 개방하였다. 1721년 공간이 좁아서 리슐리외(Richelieu)로 이전하였는데 이곳에는 8만 여의 인쇄본과 16,000여의 사본이 있었다.⁴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도서관도 바꾸어 놓았다. 베르사이유, 바스티유와 함께 수많은 책이 불탔다. 혁명 후 3년간 납본법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도서관은 왕립에서 국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립도서관은 프랑스 내의 교회 귀족들과 성직자 그리고 국외로 탈출한 망명한 자들의 장서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도서관이 중앙에 집중되었고 도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858년 나폴레옹 3세 때 국립도서관을 새로 재건축하고 1897년에는 인쇄본으로 저자명 종합목록을 만드는 데 착수하였다. 장서는 1860년에는 150만 권, 1885년 200만 권, 1908년에는 300만 권의 장서가 되었다. 1994년 1월 3일 법령으로 하나의 국립도서관이 탄생하기까지 루브르궁 가까이 있는 리슐리외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⁴⁹⁾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995년 3월에 개관한 파리 외곽 13구 모리악 강변에 있는 미테랑 도서관⁵⁰⁾을 비롯하여 1994년 1월 3일 법령에 의해 통합된 2구에 위치한 리슐리외 도서관과 4구에 있는 아스날 도서관 그리고 9구에 있는 오페라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자료의 소장량은 단행본 1,300만 권, 기록물 및 필사본 17만 종, 잡지 35만 종, 인쇄 및 사진 자료 1,500만 종, 지도 및 도면자료 80만 종, 악보 200만 권, 음반 100만 권, 그리고 수십만 종의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동전과 메달 58만 종을 보유하고 있다.⁵¹⁾

47) 곽철완,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2012), 123.

48)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1-262.

49)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서울: 한길사, 2006), 138-142.

50) 1988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의 건설계획에 의해서였다. 그의 계획은 인류를 위한 최고의 문예도서관을 짓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하여 국제설계공모에 의해 선정된 프랑스인 건축가 페로(Dominique Perrault)는 파리 13구 모리악 강변에 책을 펼친 모양의 4개의 타워로 구성된 도서관을 설계하여 1992년 착공하고 1995년에 완공되었으며 1996년에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도서관은 400km에 달하는 서가와 3천만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프랑스 초특급열차인 T.G.V(Train a Grain Vitesse)의 명칭을 따라서 T.G.B(Tres Grande Bibliothèque)로 불리기도 한다.

51)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서울: 한길사, 2006), 130.

유길준이 1885년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프랑스국립도서관 리슐리외 도서관은 프랑스 혁명 이후 20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모든 도서가 중앙에 집중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위용을 드러내던 시기였다.

<그림 3>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 리슐리외 도서관의 열람실 내부 전경이다.



<그림 3>프랑스 국립도서관중 리슐리외 도서관의 열람실 내부 전경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Bibliothèque_nationale_de_France
Reading Room, Richelieu site.jpg

4.3 기타 여러 나라의 도서관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제19편과 제20편에는 그가 방문한 도시 중의 두 군데 도서관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미국 워싱턴의 의회도서관⁵²⁾과 독일의 베를린대학 도서관이다.⁵³⁾ 이들 도서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九編, 華盛敦와싱턴 (交詢社, 1896), 455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 又書庫를 寔히야 古今政法의 記錄을 藏貯하며 又一邊에 各官府官人의 問事廳과 議事堂議員의 接賓所를 排鋪하니 ...”

53)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二十編, 伯林벌닌 (交詢社, 1896), 537에서 원문을 인용하고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였음.

“... 又此大學校에 巨大한 藏書庫를 寔히야 ...”

4.3.1 미국 워싱턴의 의회도서관

미국은 1800년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옮긴 후에 의회에는 필라델피아도서관회사와 같은 역할을 할 도서관이 없었으므로 의회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매사추세츠 출신 게리(Elbridge Gerry)의원은 1789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상세한 보고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⁵⁴⁾

1793년에 승인된 의사당 건축 계획에 도서관 설립을 포함시켰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 국회 부속의 국립도서관으로서 1800년 4월 24일에 의사당 북쪽 부분에 완성되었다. 미국은 당시 2대 대통령이던 애덤스(John Adams, 1735-1826)가 지원한 5,000달러로 영국에서 3장의 지도와 도서 740권을 구입하였다. 1802년 1월 26일 국회는 “상·하 양원이 이용할 도서관에 관한 법령”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의 대통령에게 도서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였는데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대통령은 하원의 서기였던 백크리(John James Beckley, 재임 1802-1807)를 초대 관장에 임명하였다.⁵⁵⁾

1812년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침범하여 의사당 건물을 불태웠고 이로 인해 도서관에 소장된 3천여권의 장서가 모두 소실되었다. 의회는 의회도서관 재건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그 방안으로 은퇴한 제퍼슨 대통령의 개인도서관에 소장된 장서 6,487권을 사들였다. 그해 메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대통령은 워터슨(George Watterson, 재임 1815-1829)을 신임 관장으로 선출하였다. 워터슨 관장의 재임 기간 동안 도서관 장서가 크게 증가하였고, 1824년 의사당 내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였다.⁵⁶⁾

1832년에는 의사당의 지하층에 2,000권 소장의 별도 법률도서관을 설치하였다. 1846년에는 납본법이 통과되어 각 저작자와 출판사는 간행한 서적을 각 한 부씩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의회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된 것은 링컨에 의해 임명된 스포포드(Ainsworth Rand Spofford, 1864-1897) 관장 때부터이다.

1851년 화재가 발생하여 5만 책이 넘는 장서 중 2만 책만 구해낼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스미스소니언협회를 통해 국제 교환의 방법으로 수집해오던 각국 관청의 출판물을 1866년 이후 의회도서관에 수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서 확충을 위해 내무성 산하에 있던 저작권의 등록 사무를 의회도서관으로 이관시켰다. 이 시기부터 국내 출판물의 더 많은 양이 의회도서관의 장서에 편입되었다.⁵⁷⁾

미국 의회도서관은 1897년에는 의사당 뒤편 동쪽 한 블록을 차지한 독립 건물을 지어 돔을 포함해 5층 높이의 제퍼슨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39년에는 2관인 존 애덤스관을 개관하였으며 1980년에는 3관인 제임스 메디슨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세 개의 중심 건물과 서가용 별관 건물이 있으며 카이로를

54)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69.

55) 배용수 외, 『세계의 의회도서관』 (서울: 논형, 2006), 64.

56) 광철완,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2012), 133-134.

57)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270.

비롯한 세계 5대 도시에 수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서는 2,900만 권의 도서와 인쇄기록물, 270만 종의 레코드자료, 1,200만 종의 사진, 480만 종의 지도와 5,800만 종의 필사본 등 모두 1억 3,000만 점을 보유하고 있다.⁵⁸⁾

2008년 도서관의 조직은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입법연구서비스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법률도서관국(Law Library),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사서국(Office of the Librarian), 전략기획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과(Asian Division)는 도서관서비스국 밑에 있는데 한국과 일본 자료를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 자료는 현재 24만 권 정도가 된다.

유길준이 미국 의회도서관을 방문하던 1885년 당시는 의사당의 지하층에 별도 법률도서관이 있었고, 1846년에는 납본법이 통과되어 각 저작자와 출판사는 간행한 서적을 각 한 부씩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포드 관장이 도서관 발전을 위해 장서를 확충하였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였다. <그림 4>는 1890년 경의 국회의사당 건물 내의 도서관 전경이다.



<그림 4> 미국 국회의사당 내의 의회도서관, 189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Congress
[Library_of_Congress_in_Capitol_Building.jpg](https://en.wikipedia.org/wiki/File:Library_of_Congress_in_Capitol_Building.jpg)

58) Library of Congress, History of the Library of Congress. [검색일자 2018. 4. 10]
<<https://www.loc.gov/about/history-of-the-library/>>

4.3.2 독일 베를린대학 도서관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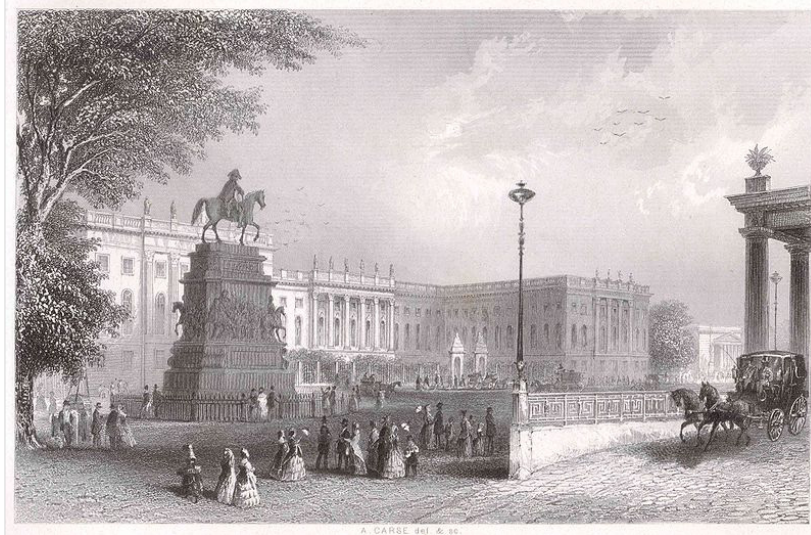
독일 베를린대학(Berliner University)은 1810년 프로시아 교육개혁자이자 언어학자였던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에 의해 개교하였고, 초기에는 별도의 대학도서관이 없어 학생들은 왕립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왕립도서관은 증가하는 대학의 도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베를린대학은 1831년에 독립된 도서관을 갖기에 이르렀다. 개관은 했으나 장서가 1,668권에 불과하여 왕립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였다.

1835년 쉥켈(Karl Friedrich Schinkel)이 대학도서관 건물을 설계하였으나 설계도는 건축 비용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슈피커(Paul Emanuel Spieker)가 다시 설계하였고 1871년부터 1874년 사이에 로텐슈트라쎬 28번지에 도서관 건물이 지어졌다. 도서관은 곡선 형태의 벽돌건물이며 1910년 대학본부 건물 옆에 위치한 국립도서관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도서관은 1898년까지 왕립도서관이 관리하였고 최소 장서 보유과정이나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도서의 기증 등을 통해 장서를 확보해 나갈 수가 있었다.

1870년에는 국가로부터 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받게 되었고, 그밖에 몇 차례에 걸친 특별 조치를 통해 많은 장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장서의 규모는 1930년에 831,834권에 달하였고, 프로이센 대학들 중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열람실의 개가식 도서만 약 36,000권에 달하였으며 대출용 도서는 200,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1933년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및 좌파 지식인 출판 소각사건(나치관 분서갱유) 중에도 대학도서관 장서는 전혀 유실되지 않았으며 2차세계대전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1949년에 창립자를 기념하여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3년에는 자연과학 분야 도서들은 새로 지어진 Aldershof 캠퍼스 도서관으로 이관하였고, 2009년에는 도서관 신축 건물 “Jacob und Wilhelm Grimm-Zentrum”이 완성되었다. 현재 대학의 총 장서는 650만 권이고, 9만 종의 잡지와 저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도서관 중의 하나이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베를린의 도시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고, 베를린대학의 모습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1885년 베를린대학 도서관 방문 당시에는 도서관이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많은 장서를 확충하던 시기였다. 유길준이 보았던 당시의 베를린대학은 <그림 5>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59) Wikipedia,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검색일자 2018. 4. 1]
<https://en.wikipedia.org/wiki/Humboldt_University_of_Berlin#Library>



<그림 5> Berlin Universitaet um 1850.jpg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umboldt_University_of_Berlin#Library

5.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의 의미 및 영향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소개된 1885년경의 서양 도서관은 매우 발전된 근대 도서관이었다. 이와 같이 발전된 서양 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의 의미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조선의 도서관 사정은 홍문관(弘文館), 규장각(奎章閣), 사고(史庫) 등의 관립도서관, 성균관(成均館), 존경각(尊經閣), 향교(鄕校), 서원(書院) 등의 교육도서관, 사원도서관(寺院圖書館), 문중(門中) 및 개인문고(個人文庫)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관립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성격은 매우 유사하였다. 도서관의 설립 목적이 군주국가의 통치와 유지에 필요한 자료와 인재 양성을 위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집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의 이용은 대부분 통치자와 관료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 대중과는 관련이 없었다. 사원도서관도 사찰을 중심으로 승려들의 교육에 필요한 집서에 한정되었다. 문중문고와 개인문고도 양반 출신의 학자 및 그 제자들과 자제들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이러한 도서관 또는 문고의 형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군주제도에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관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서양의 근대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대시민도서관의 모습을 전한 사람들은 유길준 이전에도 있었다. 19세기 말에 일본, 중국 등에 파견된 수신사(修信使)와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중에 들어 있던 개화기 인사들을 중심으로 근대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설립의 필요성을 가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김기수(金綺秀, 1832-?)⁶⁰⁾는 고종 13년(1876) 4월 수신사의 정사가 되어 일본을 다녀왔다. 그가 집필한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에는 일본 동경도서관(東京圖書館)을 보고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서적 관계 기록이 들어 있다. 김기수에 이어 김홍집(金弘集, 1842-1896)⁶¹⁾은 고종 17년(1880) 8월에 두 번째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왔다. 그가 고종(高宗) 앞에서 한 입시연설(入侍筵說)에도 동경도서관을 관람한 간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준영(趙準永, 1833-1886)⁶²⁾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문물제도 전반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가 쓴 『일본문부성관찰기(日本文部省觀察記)』의 「사무장정조(事務章程條)」에는 일본의 도서관이 1875년부터 문부성(文部省) 산하에 있고,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폐치(廢置)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⁶³⁾

유길준은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동시에 간 최초의 유학생이다. 유길준은 위의 수신사나 신사유람단 일행이 일본의 도서관 사정을 전하거나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서양 도서관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위의 『서유견문』에는 5개의 서양 도서관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서구 도서관들의 특징적인 내용을 체계화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유길준이 방문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4개, 대학도서관이 1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영국의

60)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기수.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8828>>.

“김기수(金綺秀, 1832-?)는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지(季芝), 호는 창산(蒼山)이다. 고종 12년(1875) 헤이그만국평화회의 제임 중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고종 13년(1876) 병자조약 체결 후 예조참의로 근대 대일교섭(對日交涉)의 첫 사절인 수신사(修信使)가 되어 1876년 4월 4일부터 5월 27일 20일간 일본을 다녀왔다. 김기수의 일본견문기는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에 자세하다. 이후 곡산군수(谷山郡守), 덕원부사, 대사성, 감리의주통상사무(監理義州通商事務), 홍주 목사를 거쳐 참판에 올랐다.”

61)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홍집.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1098>>.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은 본관 경주(慶州), 초명 광집(宏集), 자 경능(敬能), 호 도원(道園)·이정학재(以政學齋), 시호 충헌(忠獻)이다. 고종 4년(1867)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고종 17년(1880) 예조참의로 수신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예조참판, 호조참판, 공조참판이 되었다. 고종 31년(1894) 동학농민운동 후 제1차 김홍집내각을 조직하고 총리대신이 되었고, 이어 2차 김홍집내각, 제3차 김홍집내각, 제4차 김홍집내각을 세우면서 일본의 압력을 받아 단발령(斷髮令) 등 과격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규탄을 받았다. 건양 1년(1896) 친러파 내각의 탄생으로 김홍집내각은 붕괴되었다. 김홍집은 광화문에서 살해되었다. 순종 때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는 『이정학재일록(以政學齋日錄)』이 있다.”

62)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준영.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2627>>.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은 본관 풍양(豐壤), 자 경취(景翠), 호 송간(松澗), 초명 만화(晩和)이다. 고종 1년(1864)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고종 18년(1881)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통리기무아문의 전선사당상경리사(典選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청나라 군대가 올 때 영접관(迎接官)이 되었고, 고종 20년(1883)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를 거쳐 고종 21년(1884) 갑신정변(甲申政變) 실패 후 사대당 내각에서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이듬해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가 되고, 고종 23년(1886)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를 지냈다. 편저로는 『일본문견사건(日本聞見事件)』이 있다.”

63) 李春熙, “近代 韓國 圖書館史 研究 - 開化期에 있어서 近代圖書館思想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권(1989), 74-84.

영국박물관도서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도서관, 프랑스의 국립중앙리슐리외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이고 대학도서관은 독일의 베를린대학도서관이다.

이 중 국립도서관들을 보면, 장서는 100만 권에서 200만 권 사이였다. 이들 도서관들이 많은 장서를 구비할 수 있었던 것은 납본법과 기증, 구입에 의한 것이었다. 납본법은 영국이 1760년, 러시아가 1810년, 프랑스가 1537년, 미국이 1846년에 시작되어 국립도서관의 장서 수 증가에 크게 공헌하였다. 장서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관리, 자료조직 분야, 이용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 박물관도서관은 파니치의 공헌으로 장서관리가 이루어졌고, 편목규칙이 만들어졌으며, 납본법이 강화되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은 전국에서 서적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도서관 장서가 급증하였다. 도서관에 정보테스크가 만들어지고, 인쇄목록과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며 새로 구입한 서적의 정보가 공급되었다. 희귀본과 문학작품의 연구를 위한 연구실이 마련되었으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연장되었다. 당시의 도서관은 전문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1860년부터 1899년까지는 도서관이 가장 근대화된 시기였으며 러시아 장서로서는 가장 완벽한 컬렉션을 구축하여 러시아 문화유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의 국립중앙리슐리외도서관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3세 때 도서관 건물을 재건축하고 모든 장서를 국유화하여 200만 권을 돌파하였으며 인쇄목록도 만들어졌다. 당시로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저작권의 등록사무를 의회도서관으로 옮겨서 장서가 더욱 증가하였고, 판청의 출판물도 의회도서관에 수장하도록 하였다. 독립 건물은 없었지만 의사당 내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꾸준히 발전하여 1897년에 독립 건물을 갖게 되었다. 독일의 베를린대학도서관은 1828년에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교로 개명하였고 1831년에 독립 건물을 지으면서 도서관이 성장하였다. 학자들의 장서를 기증받고, 국가로부터 장서구입 예산을 배정받아 잘 발전된 대학도서관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서양 도서관에 나타나는 도서관의 모습은 18세기 이후 유럽에 나타나는 문명·개화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18세기의 서구 문명(civilisation)은 이성의 진보, 지식의 진보와 더불어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개혁 운동의 한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이상, 지식의 진보와 함께 이루어진 사회개혁은 사회문화시설인 도서관에도 잘 반영되어 있었다. 도서관은 유럽의 근대화의 흐름에 맞추어 장서가 증가되고 도서관의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모하였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하면서 서양 도서관의 특징을 기술한 것은 지식인들에게 근대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근대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대도서관 설치를 위해서는 근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향상은 물론,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예산, 사회 환경의 성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가능한 것인데 19세기 말의 조선의 사정은 어느 분야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는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함께 경성과

평양에 근대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경성에서는 1906년 2월 초에 이근상(李根湘), 이범구(李範九), 박용화(朴鏞和), 민형식(閔衡植), 민경식(閔景植), 윤치호(尹致昊), 이봉래(李鳳來) 등이 도서관 설립을 위한 평의원회를 구성하였고, 황성신문 1906년 2월 15일 기사에 근대도서관 설립을 위한 첫 발기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월 19일에는 대한중앙도서관 임시사무소를 경성 남서 회현방 미동(美洞) 6동 6호를 이용문(李容汶) 씨가로 정하였으며 그해 3월에 그 명칭을 대한도서관(大韓圖書館)이라 개칭하였다. 각계 인사들의 도서가 기증되었고, 3월 25일에는 도서관장에 탁지부 대신인 민영기(閔泳綺)가 선출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운영은 여의치 않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대한도서관은 일반에게 공개도 하지 못한 채 도서관 설립을 위한 10만여 권의 장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 의해 몰수되고 말았다.⁶⁴⁾

한편 평양에서는 1906년 3월에 진문옥(秦文玉), 곽용순(郭龍舜), 김흥연(金興淵) 등이 주도하여 근대시립공공도서관을 종로에 설립하였다. 황성신문 3월 8일자에는 대동서관(大同書觀) 설립의 축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도서관은 서북지방에서 신문화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려고 도서의 열람 대출뿐만 아니라 신학문의 보급을 위한 서적 간행도 하였다. 하지만 이 도서관도 일제에 의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⁶⁵⁾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길준(1856-1914)은 본관은 기계(杞溪), 호는 구당(矩堂) 또는 천민(天民)이다.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지도를 받아 개화사상에 접하게 되고,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어윤중(魚允中, 1848-1896) 등과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는 고종 18년(1881) 봄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운영하는 경응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 지도를 받았다. 고종 20년(1883) 7월에 미국에 파견하는 보빙사(報聘使)의 일원에 발탁되었고, 고종 21년(1884) 9월 매사추세츠주 바이필드에 있는 담머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 입학하였다. 고종 21년(1884) 12월 본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공부를 포기하고 약 1년간에 걸쳐 유럽 각지를 유람하고 고종 22년(1885) 12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유길준은 체포 감금되어 고종 24년(1887) 가을부터 고종 29년(1892) 봄까지 민영익의 별장인 백운동(白雲洞) 취운정(翠雲亭)에 유폐되어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초고가 완성되었다. 건양 원년(1896) 일본 교순사(交詢社)에서 『서유견문』을 간행하였다. 그해 2월 11일의 아관파천으로 김홍집과 유길준의 내각은 붕괴되었다.

64) 朴尙均, 『世界圖書館思想史』(서울: 民族文化社, 1994), 285-290.

65) 朴尙均, 『世界圖書館思想史』(서울: 民族文化社, 1994), 290-294.

이의 여파로 유길준을 비롯한 8명이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갑오개혁은 중단되었다. 유길준은 일본에서 11년간의 망명생활을 한 뒤 헤이그밀사 파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함에 따라 융희(隆熙) 1년(1907) 8월 16일에 귀국하였다. 한국의 실력 양성을 위한 교육계몽운동에 힘썼다. 1914년 9월 30일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한 것은 서구 문화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는 문명·개화의 개념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 문화 형식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모더니즘과 역사주의를 번역하고 있다. 『서유견문』은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유견문』에 제시된 문명개화의 성격은 제14편 뒷부분에 들어있는 개화의 등급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개화란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이 지극히 선하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지와 영역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개화의 등급을 구별하여 개화하는 나라, 반쯤 개화한 나라, 아직 개화하지 않은 나라로 나누었다. 둘째, 개화한 자는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을 연구하고 경영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약하는 사람이고, 반쯤 개화한 자는 사물을 연구하지 않고 경영하지도 않으며, 구차한 계획과 임시방편의 의사로 조그맣게 이루어진 것에 안주하고 장구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는 야만의 종족이다. 인간의 온갖 사물과 만물에 규모와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경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분별, 법도, 기강 및 예법이 없어서 천하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셋째, 개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체히 개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면 야만국가에 있어도 개화한 자이지만,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지 않으면 개화한 나라에 있더라도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라 하였다. 넷째, 개화를 실상개화와 허명개화로 구분하였다. 실상개화는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깊이 연구하고 고증하여 그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케 하는 경우이다. 허명의 개화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남이 잘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3)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서양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부분은 제17편이다. 이에는 ‘서적고(書籍庫)’의 제목으로 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장서, 수집 방법, 도서관의 열람제도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서 유길준이 1885년에 방문하였을 당시 서양의 유명한 국립도서관이 소개되어 있다.

유길준이 1885년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영국박물관도서관은 파니치의 공헌으로 가장 발전되었던 시기였다. 장서개발이 이루어지고, 편목규칙이 만들어졌으며, 납본법이 강화되어 장서가 100만 책을 돌파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리딩룸은 물론이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대 도서관의 웅장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에 방문한 것이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상트페테르부르크도서관은 장서와 시설 및 이용자가 가장 근대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시기였고, 이용자들이 많아 사서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자를 위해 봉사했던 러시아의 도서관의 가장 문명·개화된 단계였다. 프랑스 국립중앙리슐리외도서관은 프랑스 혁명 이후 20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모든 도서가 중앙에 집중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위용을 드러내던 시기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의사당의 지하층에 별도 법률도서관이 있었고, 1846년에는 납본법이 통과되어 각 저작자

와 출판사는 간행한 서적을 각 한 부씩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포드 관장이 도서관 발전을 위해 장서를 확충하였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였다. 독일의 베를린대학도서관은 1828년에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교로 개명하였고 1831년에 독립 건물을 지으면서 도서관이 성장하였다. 학자들의 장서를 기증받고, 국가로부터 장서구입 예산을 배정받아 잘 발전된 대학도서관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던 시기였다.

4)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소개된 1885년경의 서양 도서관의 모습은 매우 발전된 근대 도서관이었다. 당시 조선시대 관립도서관, 교육도서관, 문중 및 개인문고의 형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군주제도에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관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서양의 근대시민도서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대시민도서관의 모습을 전한 사람들은 유길준 이전에는 19세기 말에 일본, 중국 등에 파견된 수신사와 신사유람단 중에 들어 있던 개화기 인사들이다. 수신사 중에 김기수와 김홍집이 있고, 신사유람단 중에는 조준영이 있지만, 이들은 일본의 도서관 사정을 전하거나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유길준은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동시에 간 최초의 유학생으로 서양 도서관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다.

유길준이 방문한 도서관은 특징만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립도서관들의 장서는 100만 권에서 200만 권 사이였다. 이들 도서관들이 이러한 장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납본법과 기증, 구입에 의한 것이었는데 납본법은 영국이 1760년, 러시아가 1810년, 프랑스가 1537년, 미국이 1846년에 시작되어 국립도서관의 장서 수 증가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분명하다. 장서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관리, 자료조직 분야, 이용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들 서양 도서관에 18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화의 흐름에 맞추어 장서가 증가되고 도서관의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모하였다.

궁극적으로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하면서 서양 도서관의 특징을 기술한 것은 지식인들에게 근대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근대도서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인식에 수용된 문명·개화는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함께 1906년 근대도서관의 성격을 지닌 경성의 대한도서관과 평양의 대동서관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들 도서관들은 일제에 의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근대도서관의 설립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곽철완. 『도서관의 역사』. 서울: 조은글터, 2012.

金泳鎬. “俞吉濬의 開化思想.” 『創作과 批評』 11(1968). 476-492.

김현주. “『西遊見聞』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제24집(2001). 223-247.

- 朴尙均. 『世界圖書館思想史』. 서울: 民族文化社, 1994.
- 박은정.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도서관계』 6월호(2006). 26-28.
- 배용수 외. 『세계의 의회도서관』. 서울: 논형, 2006.
- 배현숙. 『정보문화사』.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2016.
- 李光麟. “俞吉濬의 開化思想 -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 『歷史學報』 제75·76 합집(1977). 199-250.
- 李起勇. “韓國開化思想과 日本文明思想의 比較研究.” 『한일관계사연구』 제4집(1995). 5-27.
- 『유길준선생연보(俞吉濬先生年譜)』.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俞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90-395.
-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四編, 開化等級. 交詢社, 1896.
-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七編, 書籍庫. 交詢社, 1896.
-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十九編, 華盛敦와싱톤. 交詢社, 1896.
-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第二十編, 伯林벌닌. 交詢社, 1896.
- 유길준 저, 허경진 역. 『서유견문』. 과주: 서해문집, 2008.
- 俞萬兼. 『선친약사(先親略史)』.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俞吉濬全書』 5의 附錄. 서울: 一潮閣, 1995. 363-365.
- 이원영. “문명사관과 문명사회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보』 제30집 제4호 (1997). 135-152.
- 李春熙. “近代 韓國 圖書館史 研究 - 開化期에 있어서 近代圖書館思想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권(1989). 71-110.
- 자크 보세 글, 이점민 옮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서울: 다빈치, 2012.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서울: 한길사, 2006.
- 韓哲昊. “俞吉濬의 개화사상서 『西遊見聞』과 그 영향.” 『진단학보』 89(2000). 227-244.
- 韓哲昊. “俞吉濬의 生涯와 思想.” 『한일관계사연구』 제4집(2000). 5-23.
- 후쿠자와 유키치 저, 정명환 역. 『문명론의 개략』. 광일문화사, 1987.
- Consortium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Russia, St Petersburg. [검색일자 2018. 4. 6]
<http://www.cerl.org/web/en/resources/hpb/content/national_library_of_russia_st_petersburg>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기수.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8828>>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홍집.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 view/14XXE0011098>>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준영. [검색일자 2018. 4. 1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2627>>
- Library of Congress, History of the Library of Congress. [검색일자 2018. 4. 10]
<<https://www.loc.gov/about/history-of-the-library/>>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rincipal Book Repository in Russia (1795-1813).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1.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New Temple of Enlightenment in St.-Petersburg (1814-1842).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2.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Arrival of Dmitry Buturlin as Director (1843-184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3.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olitical Spring in Russia (1850-185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4.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Modern Era”: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1860-1899), The laying of the foundation stone for the reading hall designed by Yevgraf Vorotilov. Photograph by Karl Bulla. 1896.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5.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Modern Era”: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1860-1899).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5.htm>>
-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Pre-Revolutionary Years (1900-1917). [검색일자 2018. 4. 6] <<http://nlr.ru/eng/nlr/history/6.htm>>
- Wikipedi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eading Room, Richelieu site. [검색일자 2018. 4. 12] <https://en.wikipedia.org/wiki/Bibliothèque_nationale_de_France>
- Wikipedia,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검색일자 2018. 4. 12]
<https://en.wikipedia.org/wiki/Humboldt_University_of_Berlin#Library>
- Wikipedia,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Berlin Universitaet um 1850.jpg [검색일자 2018. 4. 12] <https://en.wikipedia.org/wiki/Humboldt_University_of_Berlin#Library>
- Wikipedia, Library of Congress, Library_of_Congress_in_Capitol_Building.jpg [검색일자 2018. 4. 10]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Congress>

